

기후재정: 우리의 공동미래에 대한 투자

출처 = <http://www.dailydevelopment.org/blog/climate-finance-investing-our-collective-future>

23 년 전 열린 리우 지구회의(Rio Earth Summit)의 뜻을 이어받아 탄생하게 될 보편적 기후협정(universal climate agreement, UCA)은 국제사회가 지구 온도 상승을 2 도씨로 제한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다. 많은 사람들은 2015 년 12 월 프랑스 파리 글로벌 기후변화 정상회의에서 협정이 채택되기를 바라고 있다. 보편적 기후협정은 이산화탄소 배출감축을 위해 각 국가가 제출한 약속이 담긴다는 점, 그리고 개발도상국 역시 배출감축을 약속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특히 개도국은 필요한 조치를 실현할 재원조달 방법을 바라고 있다.

개도국에 필요한 돈은 어느 정도나 될까? 추산에 따르면 2020 년까지 연 4 천 5 백억 달러(배출감축에 3 천 5 백억 달러, 기후변화 적응에 1 천억 달러) 정도라고 한다. 이 중 일부는 개도국이 자체 조달할 것이지만, 배출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의 상당 부분은 선진국이 제공하는 공적기후재정(official climate finance, OCF)의 형태로 지원되어야 한다. 기후재정이 엄청난 액수처럼 들리지만, 다음의 사실과 함께 비교해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개도국으로 순유입되는 차관·지분 액수가 이미 연 1 조 2 천억 달러 이상이라는 점이다.

2010 년 멕시코 기후변화회의(Climate Change Conference)에서 국제사회는 개도국의 재정조달 필요성을 다루기 위해 녹색기후기금(GCF)을 창설했다. GCF 는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196 개 당사국을 회원국으로 하며, UNFCCC 의 기후 목표 달성을 유일한 미션으로 하는 세계 유일의 다자금융기관이다. GCF 가 추구하는 목적은 개도국서의 저탄소·기후회복력 있는 투자를 위한 급진적인 패러다임 전환이다.

이를 위해 GCF 는 어떤 활동을 하게 될까? 개도국에 기후투자를 직접금융으로 제공하고, 민간투자 및 금융시장 등 기타금융을 레버리징(leveraging)한다. GCF 는 양허적(concessional) 차관을 제공하며, 혁신적인 위험부담역량(risk-bearing capacity)을 갖춰 민간부문이 보다 적은 위험을 갖고 자금을 공급할 수 있도록 GCF 가 민간투자의 위험 부담하도록 했다.

2013 년 12 월 대한민국 송도에서 GCF 본부가 출범한 이래 많은 일들이 이루어졌다. GCF 는 사업 제안에 열려있고, 120 개 이상 개도국에 마련된 GCF 연락창구 네트워크는 더욱 커지고 있다. 개도국은 자금공급 과정에서

중요하며, GCF 이사회 자체도 개도국과 선진국 대표가 동수를 유지하게 되어있다.

GCF 출범한 작년, 개도국을 포함한 33 개국은 1 천억 달러에 달하는 재정 지원을 약속했다. 재원조성은 계속되고 있다. 재정약속의 상당 부분은 이미 공여협정을 통해 가용자원으로 전환되어, GCF 는 기후 관련 프로젝트/프로그램 투자를 개시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러면 GCF 사업은 어떻게 운영될까? 프로젝트 사이클 동안에는 인증기구들이 GCF 를 대신하여 사업을 진행한다. 인증기구는 각 국의 지방지구에서부터 역내기구, 민간 은행과 펀드, 비정부 기구, 국제기구 등이 모두 될 수 있다. GCF 인증 파트너들은 다양한 금융수단(양허성 차관, 후순위 채권, 지분, 보증, 무상증여)을 통해 GCF 자금을 분배하고 프로젝트 영향을 모니터하게 될 것이다. GCF 이행기구가 되기 위한 신청서가 전세계에서 제출되고 있고, 이미 인증을 받은 기구들도 탄생했다.

민간부문이 저탄소 기후회복력 있는 활동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GCF 민간부문기구(Private Sector Facility)는 국제기업, 자본시장, 개도국 민간부문과 협력하고 있다. GCF 는 위험부담역량을 활용하여 에너지 효율, 산림보호와 재조림, 기후관련 보험상품, 사막화에 대응한 적응 농경법(adaptive agricultural methods) 등 다양한 프로젝트에 대한 민간투자를 지원할 것이다.

전 세계는 올해 말 파리 기후변화 정상회의에서 기후재정과 관련한 중요한 결정이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다. 현재까지 각 국이 공적기후재정(OCF)을 약속하는 등 시작은 나쁘지 않았지만, 전세계 기후 변화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액수로서는 극히 적은 양이다. GCF 에 약속된 초기 자금보다 훨씬 많은 양으로, 예측가능한 OCF 장기 자금흐름이 2020 년까지 또 그 이후까지 마련되어야 한다. 그러한 투자 확대를 지금 마련할지 아니면 인류의 발전에 심대한 저해를 가져올 위험을 무릅쓰고 나중에 투자를 미룰지. 투자 확대에 대한 논리는 자명하다.